

장성군-제주도 상생협력 '돋보이네'

제주 서귀포서 판촉행사 개최... 장성 농특산물 조기 매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명예 군민패 전달...외부 인사 첫 사례



장성군이 지난 13~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박현숙 전남도의회 의원, 장흥모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제주장성군향우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제주도 판촉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에는 딸

기, 사과, '365생' 프리미엄 장성쌀, 대봉 등 농산물부터 사과주스 등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특히, 딸기 1kg을 구입하면 장성쌀 500g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마련해 일찌감치 매진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서, 1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도지사에게 '명예 군민패'를 전달했다. 장성군에서 외부 인사에 명예 군민패를 수여한 첫 번째 사례다.

오영훈 도지사는 장성군과 제주도 간의 활발한 교류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에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 강연을 맡아 제주의 비전과 혁신 구상을 공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농특산물 판로가 제주도까지 넓어져 농가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성 건설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후에도 균형 발전 공로가 현저하거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기대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명예 군민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꽃강길 나드리교 정밀 안전 점검 '이상 무' 화순낙화놀이축제 '주최 측 안전 이유로 통행 차단' 점검 결과 양호

화순군은 최근 화순적벽 낙화놀이 축제와 관련하여 수용인원 및 안전성 논란을 빚은 나드리교에 대하여 긴급으로 정밀 안전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드리교는 총연장 107m, 폭 3.0~5.0m로 2014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11일 "화순적벽낙화놀이축제"에서 행사를 주관한 화순청년회의소(IC)가 나드리교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교량의 수용인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화순군은 전문 업체에 긴급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의 기준에 따라 비파괴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양호한 B등급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1,337명으로 주요 구조부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량 내 보행로 데크 시설의 노후 및 부식 등이 확인됐다.

화순군은 "나드리교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교량 내 보행로 데크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시책 추진은 물론 사육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시책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축산정책, 동물복지, 축산경영, 축산자원화 등 총 4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담양군은 녹색축산육성기금 추진, 축산 정보통신 기술(ICT) 사업 실적, 유기동물 보호 관리,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및 가족 사육 밀도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담양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자체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가축수분조절제 4억 2천만 원, △조사료 파종 농가 생산장려금 1억 9천만 원, △축산 환경 개선 사업 2억 7천만 원,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1억 2천만 원 등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전라남도 축산시책 우수상은 행정과 축산인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면서 "잘사는 부자농촌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축산업의 경영안정과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캠페인

구례군은 12월 18일 구례5일시장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와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실천을 위한 군민 참여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례군은 구례5일시장을 방문한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리사일)을 양말)을 배부하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 실천을 유도

했다.

구례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동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위원회 사무실 개소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 (주)하이지노 나주 이전 입주식도

나주시가 민선 8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사무실을 빛가람동에 마련했다.

사무실 개소와 더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특화기업인 (주)하이지노가 같은 건물에 새 동지를 틀면서 관련 산업 기업 유치에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 소재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에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및 (주)하이지노 입주식을 가졌다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는 지난 2월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4월 출범했다.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전문가, 산업협회 임원, 기업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기업 유치 노력의 첫 결실로 (주)하이지노가 나주에 새 동지를 틀게 됐다.

2018년 설립된 (주)하이지노는 짧은 시간에 국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MES, SaaS, IoT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의 선두 격으로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및 기업 이전 입주식엔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김하을 (주)하이지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하이지노의 소프트웨어 고도화 기술은 전력반도체 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등 기술적 연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터 구현 기술을 보유한 하이지노 나주 이전을 결단해주신 김하을 대표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환영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채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